

Feature Story

특집 |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남문기 총회장

“제2의 한인 오바마, 반드시 탄생합니다!”

글로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남문기 총회장



Feature Story

지나 6월 23일 부터 26일 까지, 재외동포재단의 주관으로 2009세계한인회장대회가 열렸다. '글로벌 한인, 선진 코리아'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2009세계한인회장대회는 거주국 내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역량 결집과 모국과의 유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 세계 한인회간 상호 교류의 장이다. 취재진은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한인들을 대표하여, 2009년 새롭게 취임한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남문기 총회장(전 제28대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 제21대 미주한인상공인 총연합회 총회장)을 만나 인터뷰를 나눠보았다. 글로벌 대한민국을 외치는 남문기 회장. 그와 함께 재외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해 보도록 하자.

재외국민에 대한 인식,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남 회장은 2009년 7월 1일부터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의 총회장으로, 미국에 상주하는 재외국민 250만여명을 이끌어 가야 한다. “물론 미주한인들의 대표로서 그들을 이끌어 가야한다는 부담감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재외국민을 대표하여 그들의 권익 향상과 나라 발전을 위해 주력을 다할 것입니다.”

실제로 미주한인회 회장은 약700만 명의 재외국민을 위해 앞장서는 대표자로, 누구보다 해나가야 할 임무가 막중하고, 그 책임감 역시 무거울 수밖에 없다.

남 회장은 가장 먼저 국민들의 재외국민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재외국민을 ‘조국이 싫어 떠나간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고, 재외국민들을 통해 우리 경제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이제는 그들을 통해 한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실제 미국에는 연간 순이익 1억불의 국내기업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들에 대한 어떠한 투자나 지원도 하지 않을 뿐더러,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 남 회장은 “그들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한 많은 관심과 투자, 지원이 필요합니다”라며 “재외국민의 수는 현재 계속해 증가하고 있고,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동포가 아닌 ‘재외국민’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는 시각과 언론인이 보는 시각, 정치인들이 보는 재외국민에 대한 시각이 모두 변화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국가를 위해 경제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질적으로 생각해선 안됩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 세계 각지로 나아가는 한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고, 해외에 나가있는 국내기업의 발전을 위해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해외에서 'KOREA'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구축하는 것이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위해 우편투표제 실시해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허용하는 정치관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재외국민 약 250만 명이 투표





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체류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국내 거주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는 지방선거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 국적을 지녔으면서도 선거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선거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0만 명이 넘는 재외국민이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돼,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는 선거구에서 재외국민의 표심이 중대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허용은 당연한 일입니다. 재외국민도 한 민족으로서, 똑같이 민족의식을 고취하며 살아갑니다. 부모가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그 자녀도 똑같이 참정권에 대해 교육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권리 행사마저 외면당하게 됩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재외국민들의 민족의식이 고취되고 대한민국의 정치성도 글로벌화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참정권 허용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은 허용했으나, 실질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도는 극히 드물었다. “LA총영사관에 투표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곳 단 한 군데뿐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11배가 되는 땅덩어리에서 40만명이 투표를 하기 위해 한 곳으로 모인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득표율이 0.5%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 선거 방법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참정권을 얻어낸 지위에 부합되도록, 변화가 필요합니다.”

남 회장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편투표제’를 내놓았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우편투표제를 허용하고 있다. 거리의 문제로 직접 투표소를 찾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한 배려 정책이다. 남 회장은 현재 미국에 있는 재외국민들을 위해서도 우편투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편투표제로 인한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지만, 이마저 외면당하게 된다면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은 ‘빛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다.

미국의 한인 정치인, 배출되어야 한다

“현재 수많은 재외국민들이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50년 후 과연, 실질적인 서울은 어디가 되어 있겠습니까? LA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에서의 한국인들의 입지가 넓어지고 있고, 그들의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2의 오바마, 한인 대통령이 탄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파와 국경을 초월한 국가적 이익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남 회장은 재외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한인 정치인을 배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인 정치인 배출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바로 '이중국적 인정' 이었다.

“미국이라는 대륙, 우리는 충분히 그 곳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중국적을 인정해야 100만 이상의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획득해 참정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적변동 개념이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는 ‘창씨개명’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중국적을 인정하여 세계화의 첫걸음을 디디고, 민족 및 역사 교육을 확실히 하여 민족 차원의 교육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국경은 사라지고 있다. 국경이 붕괴되고 이제는 ‘민족 대결’이라고 남 회장은 주장한다. 그는 이어 “이중국적을 인정한 후 그들을 위해 한글 교육책자 배부 등 다양한 민족차원의 교육을 실시한다면, 타국에서의 한인 정치인이 탄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발 문제, 정부에서 눈을 뜨고 확실히 지원해 줘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재외국민 50만 명 중 10명 내외는 정치인으로 부상하여 자민족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반면 한국은 무려 재외국민 130만명 중 단 5명 내외의 정치인을 배출한다. 그만큼 타국에서 한인들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중국적에 대한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되면 수십년 안에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약 10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들은 미국 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모든 면에서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뽐낼 것입니다. 미국의 한인 정치인, 그리고 한인 미국 대통령. 그들의 탄생이 멀지 않았습니다.”

남 회장의 모든 소망과 비전은 온통 재외국민들을 향해 있었다.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남 회장의 마음은, 조국을 떠나 타국에 나가있는 우리 민족의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빌딩 청소부에서 부동산 그룹 최고 경영자가 되기까지...

‘아메리칸 드림’ 성공신화의 주역 남문기 회장. 그는 1982년 단돈 300불을 가지고 미국으로 뛰어 들었다. 제일 처음 그가 시작한 일은 빌딩 청소부. 빌딩 청소부를 시작으로 그는 점점 청소의 달인이 되어 갔다. 매사 성실했던 그였기에, 당시 일하던 CNP를 LA 최고의 청소회사로 성장시키기도 했다. 청소에 주



력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미국 경제의 지휘자는 부동산 산업이라고 판단하여 부동산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일을 사랑하여 일에 미쳐 살았던 그는 하루에 잠을 4시간 이상 자지 않고 일했다. 그 결과, 현재 그는 뉴스타부동산(www.newstarrealty.com)의 CEO가 되어있고, 부동산 그룹 최고경영자로 급부상하여, 많은 한인들의 멘토가 되고 있다.

그는 현재 부동산을 경영하며 미국 땅을 사고 판다. 사실 상 미국에서의 한국인의 영토확장인 셈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것’이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남 회장을 ‘신광개토대왕’이라고도 부른다.

“부동산 산업은 컨설턴트, 관리자, 은행, 이삿짐 회사 등 많은 일자리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재외국민의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청소가 예술이라면, 부동산은 종합예술입니다.”

남 회장은 2000년 뉴스타부동산의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8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현재까지도 장학금 지급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한인회를 포함, 여러 단체에 후원사업을 하며 재외국민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남 회장은 미주한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세계 속의 한인들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며 정부에 일침을 가하는 남문기 회장. 그의 뜨거운 도전정신과 열정이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리라 기대해 본다.

취재: 장승기 기자 / 사진: 최하경 기자